

잼버리 참여 대원 의사소통 능력 높인다

전북교육청, 'Draw Your Jamboree' 영어자료집 앱 개발·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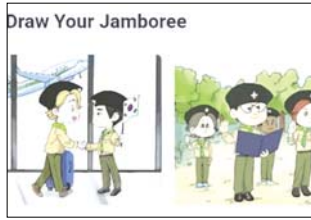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Draw Your Jamboree' 영어자료집을 앱으로 개발 잼버리 국가대표 및 스카우트 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1일 밝혔다.

'Draw Your Jamboree'는 잼버리 영내·외 과정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잼버리 실제 상황별 내용으로 구성된 영어자료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항 환영인사부터 시작해 잼버리 행사·프로그램·서비

스센터 관련 대화, 민박과 관광 환송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을 담았다.

특히 잼버리 참가 대상을 고려해 수준에 맞게 제작했으며, 일반 영어 회화책과 구별할 수 있도록 잼버리에서 사용되는 영어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실제 캠프장 찾아가기, 잼버리 과정활동 프로그램 참여 방법, 잼버리 기념주화와 우표 사기, 잼버리 대회장서 병원찾기 등의 상황이 영어와 한글로 동시에 기술돼 있다.



또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대한 소개와 스카우트 일반 용어, 스카우트

전문용어까지 한 데 구성해 활용도를 높였다. 'Draw Your Jamboree'를 이용하고자 하는 스카우트 대원이나 일반인은 앱스토어에서 검색한 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어자료집을 앱으로 제작·보급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잼버리 참가 대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데이터 분석대회서 '최우수상'

전북대 JBIG팀, 랜드마크 이미지 분류 문제 등에 대한 솔루션 제시 '호평'

전북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JBIG팀(김동만, 고경수, 문우혁, 황산하 학생)이 '2021 데이터 크리에이터 캠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한 이 캠프는 3개월 동안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데이터 분석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해결해 보는 실습 과정으로, 참가팀들이 당일 공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프레젠테이션까지 진행하는 해커톤 대회다.

총 323명의 고교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이번 캠프에서는 데이터 분석 초급자들도 이로부터 배우면서 실습 성과물까지 낼 수 있는 차별화된 과정 제공과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통한 맞춤 멘토링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전북대팀은 사회학과와 경제학과, 통계학과 학부생으로 구성돼 그동안 데이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스타디를 하던 학생들이다.

이들은 당일 제공된 랜드마크 이미지 분류 문제에 대해 이미지 증강 및 EfficientNet 모델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단시간에 협업으로 좋은 성능을 도출했다는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

NIA 문용식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차세대 리더이자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나갈 미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해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창의력 있는 데이터 인재 육성을 위해 진행된 데이터 크리에이터 캠프 본선 최종 수상자들의 인터뷰는 K-ICT 빅데이터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추후 공유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금속단백질의 바이러스 결합 억제 기작 밝혀

전북대 이재민·황윤하 대학원생 논문... 영국 왕립학회 발간 학술지 12월 표지 논문 선정 게재

전북대학교 이재민·황윤하 대학원생(화학과·지도교수 이승재)이 바이러스 결합을 억제할 수 있는 구조적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로, 영국 왕립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Dalton Transactions' 12월 표지 논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금속단백질이 결합 억제에 역할을 한다는 중요한 기작을 발표한 것이어서 세계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망간 이온과 칼슘 이온을



이재민 대학원생 황윤하 대학원생

포함하는 ConA는 단백질이 용해돼 있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른 금속 이온으로의 치환이 가능하며, ConA 단

일체 구조로부터 이중합체 혹은 삼중합체를 형성하는 구조적 변화가 이뤄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합체 구조를 형성한 ConA 단백질은 바이러스와 결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당단백질과의 결합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생물리화학적 연구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전북대 중점연구소인 유전공학연구소(소장 김대혁)에서 진행 중인 '국가제안형 질병 제어'를 위한 신속·맞춤형 유전공학 기반 기술 개발 및 활용 연구'의 지원을 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신임 총장 임용 후보자에 이장호 교수

340표 중 104표로 당선

군산대학교 제9대 총장 임용후보자로 이장호 교수(56, 기계공학부)가 선출되었다.

21일 진행된 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 진행되었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전체 후보자 6명 중 이장호 교수가 1순위로, 나인호 교수가 2순위로 선출되었다.

이장호 교수는 전체 환산득표수 340표 중 104표를 얻었고, 2위인 나인호 교수는 79표를 얻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에서 1위와 2위에 오른 두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2차 투표에서는 이장호 후보가 57.7%(환산득표수 197.9표), 나인호 교수가 42.3%(환산득표수 145.6표)를 얻어 이장호 교수가 제 9대 총장임용후보자로 당선되었다.



이장호 교수

이장호 교수는 공약에서 "다함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든든한 군산대를 비전으로 제시하겠다. 이를 위한 6대 전략으로는 ▲지속가능 재정운영시스템 ▲지역공감 지식협력시스템 ▲미래지향 교육혁신시스템 ▲초맞춤형 연구지원시스템 ▲모두만족 행정시스템 ▲행복실현 복지시스템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는 ▲대학자체 수의구조 창출 ▲재정확충의 다원화 ▲총장 직속 "튼튼한 재정" 전략팀 운영 ▲지자체 및 기업과 파트너십 강화 ▲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 확대 ▲융복합 지역 특성화 교육 강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시스템 전환 ▲학사구조 개편 및 교육환경 개선 ▲미래 연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연구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연구 및 지식협력 네트워크 개선 ▲행정업무 시스템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대, 2021학년도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

군산대학교가 지난 20일 대학본부에서 '2021학년도 사랑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우수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동익 총장직무대리, 주정훈 대외협력본부장, 최광숙 대외협력본부 행정실장이 참석했고, 장학금은 역사철학부(2학년) 김호진, 산업디자인학과(3학년) 장은지 학생에게 전달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사랑장학금을 조성한 고(故) 정연택 기부자의 딸인 정태순 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정태순 씨는 군산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

사랑장학금은 성실한 학습 태도와 반듯한 인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매년 학업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군산병학교등학교 교장이었던 고(故) 정연택 기부자가 조성한 장학기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군산=한경봉 기자

우석대, '블록 교체형 한지 면상발열 장판' 출품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인 탄소기반 에너지나노소재융합연구소가 22~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 블록 교체형 한지 면상발열 장판을 전시 출품한다고 밝혔다.

연구소가 출품하는 블록 교체형 한

지 면상발열 장판은 기존 한지 장판의 단점을 극복하고 블록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또한 내구성과 실용성, 경제성까지 모두 확보한 기술로 현재 특허 출원 중이다.

현재 연구소는 전북지역의 특화사업인 한지와 탄소의 융·복합을 통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사업화, 전통산업의 세계화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중이다.

박미라 소장은 "이번에 출품되는 제품은 탄소 발열체를 이용한 저전력 구동체로 한지와 탄소발열체 각각 특유의 원적외선 방사율이 90% 이상 방출되며, 보온 효과와 시공성이 좋고 간편하게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자치분권 2.0시대 순창군의회가 군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 군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군민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순창군의회
56039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063)650-1021,1043 fax)063)652-6782
<http://www.sunchangcouncil.go.kr>

"주4일제 학교로교육생태계 전환"

차상철 대표, 중·고교·혁신학교에서 시범 실시 주장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는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전북교육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현재 교실 수업 위주의 학교 교육시스템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창의적 인재로의 성장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학교 교육 재구조화를 통해 교육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교육정책으로 '주 4일제 학교'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4일제 학교의 효과로



차상철 대표

▲체질 중심의 진로 교육 내실화 ▲생태환경교육으로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극복 ▲지성과 감성, 신체를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전인교육 효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 있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중·고등학교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범학교를 선정, 예산지원과 학습비우려제도를 도입해 주 4일제 학교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차상철 대표는 "주 4일제 학교를 위해 진로체험 및 생태체험 시설을 확대하고, 학생진로교육원 신설과 지역교육지원청을 학교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겠다"면서 "학교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법령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전환학교 설립 필요"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 정책간담회서 주장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인 '토기장이학교'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도내 전환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환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스스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배움을 일차시도록 하는 1년의 전환학년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덴마크의 '에프터스쿨레', 서울시 '오디세이학교'가 대표적이다.

황 전 부교육감은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협업으로 운영되는 '오디세이학



황호진 전 부교육감

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적을 둔 상태에서 전환학교에서 1년의 배움을 거친 후 원학교 2학년으로 전학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하면서, "전북에도 '오디세이학교'와 같은 전환학교 설립을 통해 전북의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마음껏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교육 초·중학생들은 의무교육으로 모든 지원을 다 받고 있는 반면, '토기장이학교'와 같은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생들은 학교를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며, "학교인이든, 학교밖이든, 모든 아이들의 '교육평등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